

Hanmi 한미약품

한미약품 1st SGLT2억제제 출시!

**다파론<sup>정</sup>** (다파글리플로진비스-프롤린) 5mg 10mg

**다파론듀오<sup>서방정</sup>** (다파글리플로진비스-프롤린/메트포르민염산염) 5/500mg 5/1000mg 10/500mg 10/1000mg

HM-Design 2303\_01

## 1967년 [醫協新報]에서 2023년 [의협신문]까지

의협신보



[1호 창간호] 1967년 3월 21일 [醫協新報] 창간호. 박정희 대통령의 축하 휘호와 박목월 시인의 창간 축사를 실었다.



[100호] 1면. 1968년 3월 7일 지령 100호.



[104호] 4면. 1968년 3월 21일 창간 1주년 특집호. 박정희 대통령의 축하 휘호와 이호상 국회의장의 축사.



[184호] 2면. 1968년 12월 26일자. 12월 22일 의협회장배 제1회 전국의료인 친선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227호] 3면. 1969년 5월 29일자. 5월 25일 열린 제1회 전국사연식정구대회. 부산팀이 우승했다.



[229호] 4면. 1969년 6월 5일자. 6월 1일 열린 제1회 전국의료인 친선뉴스대회. 치과의사도 참여했다.



[278호] 5면. 1969년 11월 24일자. 동아 제약 공동 제정 1회 의료문화상 시상식과 의협 창립 6주년 기념식.



[414호] 1971년 3월 22일 [醫協新報] 창간 3주년 특집호. '번영과 도약을 위한 대전' 경부고속도로 개통.



[473호] 1971년 10월 14일자에는 제7차 시마오 서울대회 개막식을 담았다. 16개국에서 1200명이 참여했다.



[478호] 1면. 1971년 11월 1일자에 실린 이충동 의협 회관 전경. 특집으로 눈의 날과 의인미술전을 기획했다.

[의협신문]은 2023년 6월 26일자로 지령 5000호를 발행했다. 1967년 3월 21일 창간호부터 지령 5000호까지 56년 동안 매주 수지 않고 독자 회원의 직장과 가정을 찾았다. [의협신문]이 창간하며 내건 의권과 의도의 의결을 돌아본다. 지령 5000호는 의료계의 공론지로, 국민보건에 기여하는 공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발로 뛰며 기록한 56년 의료계 역사다(관련 기사 14~17면). [편집자 주]

의료계 목소리 대변 지령 5000호  
의료 전문언론 선호도·신뢰도 1위  
“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창간 사시-의권옹호·의도양양·  
의료문화 발전·의정쇄신  
창간 사훈-창의발휘·책임완수·  
신속정확·인화단결

“본지는 명실상부한 의협의 대변지이기에 앞서 보다 공정한 위치에서 우리의 지상목표인 의도양양과 의권신장을 위해 대내적으로는 회원의 결속과 단결을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의협의 지로와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범보건의료계의 공론을 정확·신속하게 펴고 나아

가서는 해외 각국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보건에 기여해보려는 사회공기의 기능을 다할 것을 창간에 즈음해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醫協新報(의협신보)]는 56년 전 1967년 3월 21일 창간사에서 의사의 정신과 의권을 드높이기 위해 대내적으로 회원의 결속과 단결을, 대외적으로 의협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전문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천명했다. 아울러 보건의료계의 공론지이자 국민보건에 이바지하는 사회공기의 기능에 충실할 것을 선언했다. 대내외에 천명한 [醫協新報]의 역할과 가치를 실천하며, 묵묵히 걸어온 56년의 역사가 바로 지령 5000호다. [醫協新報] 창간을 논의할 당시인 1966년 12월 31일 대한민국 의사 수는



1967년 3월 10일 옛 대한의학협회 회관(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44-5)에서 열린 [醫協新報社] 현판식. 당시 명주완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신문사 창간주역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8852명. 인구 수(2864만 7176명)와 대비하면 의사 1인당 인구 수는 3283명에 달했다. 2023년 6월 현재 의사 수는 11만 3039명으로 1966년과 비교하면 13배가 늘었다. 인구 수(5140만 521명)와 대비하면 의사 1인당 인구 수는 455명으로 7배 이상 의사 접근성이 향상됐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보건약계 전문언론은 1955년 창간한 의사시보(醫事時報, 현 후생신보), 1960년 서울시의사회 기관

지로 창간한 서울醫事週報(현 의사신문), 1954년 약계 전문지 藥事時報(현 약업신문)를 비롯해 藥界新聞(1964년), 한국약업신문(1966년, 현 보건신문) 등이 신문을 발행했지만 의협을 대변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의협의 단결을 저해하는 논조를 펴면서 공지에 몰아넣는 사례가 발생했다.

[의협신문 취재팀/편집팀/정책산업팀 일동]